■ 민족문화연구 제83호(2019.05.31),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p.171-210.
http://doi.org/10.17948/kcs.2019..83.171

【특집2: 일본 교토대학 가와이문고의 학술적 가치(1)】

조선 연행록의 세계*
—가와이문고(河合文庫) 소장 趙顯命『歸鹿集(瀋行日記)』에 보이는 중국 관찰과 국왕 영조의 反滿 의식—

후마 스스무(夫馬進)**

목 차

1. 머리말
2. 「심행일기」에 보이는 조현명의 중국 관찰
3. 조선 내 정세와 영조의 反滿 의식
4. 조선 연행록에서의 「심행일기」의 위상
5.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河合文庫)에 소장된『歸鹿集(瀋行日記)』에 보이는 조현명의 중국 관찰과 영조의 反滿 의식을 살피면서, 청나라가 중국을 지배했던 기간 동안 무수히 창작된 연행록 가운데 역사적으로 「심행일기」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을 밝혔다.

조현명의 중국 관찰은 조선에 유리한 방향에서 주관적인 희망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해석한 기존의 연행사와 달리 매우 객관적인 것이었으며, 만주족이 발흥해서 중국을

* 본 논문은 첨부한 일문(日文) 논문의 한국어 번역임.
** 교토대학 명예교수.

지배하게 된 것이 하늘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라고까지 해석하였다.

한편, 영조는 '청나라 백 년의 운'을 이야기하면서 '反滿', '反淸'을 국시로 해온 국내 정세에 궤를 같이 하는 듯하지만 국내의 통치를 견고히 하기 위해 '反滿', '反淸' 의식을 이용한 것처럼 보이는 언급을 한다.

이러한 내용은 「심행일기」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하며,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와 같은 사료에서는 살펴볼 수 없는 내용이다.

이처럼 조선연행록의 세계에는 조선 지식인이 지녔던 정신세계의 정수에 가까운 기록이 종종 등장한다. 이를 통해 역사적인 허위와 허구가 존재함을 간파하면서 다양한 사료와 연결 시켜 연구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주제어: 조현명, 심행일기, 귀록집, 영조, 연행록, 반만(反滿), 반청(反淸).

1. 머리말

나는 지금까지 조선 연행사와 조선 통신사 및 동아시아 국제관계사를 연구해왔다. 나의 연구는 어디까지나 역사연구로서, 이러한 의미에서 나는 문헌연구에 있어서 단순히 한 명의 이용자에 지나지 않으나, 한편으로는 일본에 현존하는 연행록을 소개해서 해제를 한 일이 있다.

여기에서 소개하는 趙顯命의 『歸鹿集(瀋行日記)』에 대해서도 이미 간단히 소개했다. 이 문헌은 한국에도 현존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는 귀중본이다.[1] 이에 나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몇 가지의 문제에 한하여 해제를 더했다. 본고에서는 「解題」에서 이미 다루었던 것은 일체 서술하지 않겠다. 여기서 서술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조현명의 「심행일기」에 보이는 그의 중국 관찰이 청나라가 중국을 지배했던 300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무수히 창작된 연행록 중에서 역사적으로 어디에 위치하는 것인가, 라는 문제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둘째, 당시 국왕 영조의 反滿 의식이 어떠한 것이었으며, 그것이 조현명의 중국 관찰에 어떠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지, 라는 문제에 관한 것이다.

이번 보고를 계기로 나는 처음으로 가와이문고본 『귀록집』과 한국 규장각본 『귀록집』(『한국문집총간』 제212・213권 수록)을 전 권에 걸쳐 상세히

1) 夫馬進, 「日本現存朝鮮燕行錄解題」, 『朝鮮燕行使と朝鮮通信使』, 名古屋大學 出版會, 2015, 442-446면.

비교 검토했는데, 전자에 수록된 「심행일기」가 후자에는 수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양자에 수록된 詩文에는 다수의 出入이 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러한 문헌연구에 속하는 부분은 여기에 서술하고자 하는 주제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모두 생략하겠다.

2. 「심행일기」에 보이는 조현명의 중국 관찰

조현명이 瀋陽問安正使로서 심양에 갔던 것은 1743년(乾隆 8, 英祖 19)이었다. 사절의 목적은 청의 건륭제가 北京에서부터 熱河의 離宮을 경유하여 선조의 묘소를 참배하기 위해 심양에 올 것이라는 사실을 조선 측이 포착하고는 조선국왕 영조의 이름을 대신해서 문안을 올리기 위함이었다. 조현명의 중국 관찰이 어떠한 특색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역대 연행사에 의한 중국 관찰 가운데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 밝히기 위해, 조현명이 심양에 가기 전까지 조선에서 청나라와 만주족을 대체로 어떻게 인식해왔는지 간단히 서술하도록 하겠다.

중국의 명 말기에 해당하는 1627년과 1636년, 조선은 만주족인 後金, 뒤이어 청나라에게 두 차례 침략당했다. 특히 1636년의 침략 때는 피해가 막심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만주땅에 포로로서 연행되어 노예가 되었을 뿐 아니라 조선국왕은 서울까지 진군해온 황제 홍타이지(太宗)의 앞에서 무조건항복을 강요당했다. 조선은 그 이래로 청나라를 종주국으로 섬겨 조공사절을 매년 심양에 보내야만 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조선국왕은 명으로부터가 아닌 청의 책봉을 받게 되었다. 조선에서는 그때까지 만주족을 문화적으로 열등한 민족으로 여겨서 그들과 交隣關係, 즉 조선으로부터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관계에 있는 민족으로 생각해왔으나, 굴복당해 상하관계가 완전히 역전되었다. 이어서 1644년에는 청이 북경을 침공하여 명을 멸망시켰다. 일본에 침략당했을 때 망국의 위기에서 구원해주었던 명을 멸망시켰던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조선민족의 자존심을 통렬히 손상시켰다. 그들은 만주족을 계속해서 경멸시하며 청나라에 원한을 품은 데 그치지 않고, 만주족에 지배당하면

서 번번하게 살아가는 한족까지도 '胡人'이라 부르며 경멸했다. 한족은 부득이하게 변발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反滿'과 '중국 멸시', 게다가 이것을 정신적으로 지탱하는 '주자학 신봉'이 조선의 국시가 되었다.

명나라가 멸망하고 10년이 경과했을 즈음, 국왕 孝宗 대에 조선에서는 무력으로써 청을 쓰러뜨려야 한다는 논의가 열광적인 주자학자 宋時烈 등에 의해 제창되었으나, 이 북벌론은 실행되지 못하고 끝났다. 조선 지식인은 만주족에 원한을 품은 채 臥薪嘗膽을 할 수밖에 없이, 무력으로 승리할 방법이 없는 이상 청나라가 내란으로 자멸해 주기를 강력히 바라게 되었다. 康熙 연간에 북경에 간 사람들이 남긴 기록을 보자면, 강희제가 통치자로서 자질이 열등한 인물이라고 여러 차례 관찰했다. 또, 중국에는 내란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했다. 天變地異나 기근이 빈발하고 있다고 전한다거나, 만주족이 사치에 익숙해져 약체화되었다고도 전했다.[2] 실제로 吳三桂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조선은 큰 희망을 가졌으나, 청년 황제 강희제의 단호한 지휘 아래 그 반란은 신속히 진압되었다. 오삼계의 난이 종식된 뒤에도 강희제는 통치자로서 자질이 열등하며, 강희제뿐 아니라 만주족 자체가 사치스러워 전과 비교해 쇠약해졌고, 중국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기근이 빈발하고 있다고 연행사들은 전했으나, 이것은 실태의 일부를 떼어내어 과대 포장한 그들의 희망적 관측에 지나지 않았으며, 당시 중국에서는 조선 측이 좋아할 만한 희망적 관측을 위조해서 가짜 증거를 팔아 이익을 얻는 사람도 있을 정도였다. 조선 지식인들의 반청의식, 한족멸시의 감정은 오랫동안 이어져, 1801년(嘉慶 6, 純祖 원년)에 북경에 간 吳載紹의 『燕行日記』에 보이는 내용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3] 1년에 적어도 2회는 북경에 조공사절을 보내면서도 조선 지식인은 중국 지식인과의 교류를 끊었다. 양국 지식인 사이의 교류가 부활한 큰 계기가 된 것은 1765년(건륭 34, 영조 42)에 洪大容이 북경에 간 일이다.[4] 조현명이 심양에 간 것은 그 22년 전이었다.

---

2) 夫馬進, 「第7章 朝鮮燕行使による反清情報の収集とその報告—1669年閔鼎重の"王秀才問答"を中心として—」, 같은 책.
3) 夫馬進, 「吳載紹 『燕行日記』 해제」, 같은 책, 456면.
4) 夫馬進, 「解說」, 『乾淨筆譚 1』, 東京: 平凡社, 2016.

다음으로 조현명의 중국 관찰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아래 기록한 것은 그의 중국 관찰의 총론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다.

> 遼陽평원이 구석구석까지 개간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인민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건륭제가 이번에 묘소에 참배하면서 막대한 자금을 자신이 직접 냈으므로 재정도 풍부한 것이다. 황족이나 대신들이 풍족하게 생활하고 있음에도 만일 원정을 하게 되면 들판에서 식사하고 노숙해도 피곤한 기색이 없으며 말은 여위었다 하더라도 채찍을 보면 화살같이 질주하는 것으로 보자면 군인과 군마가 정예인 것 또한 알 수 있다. 조선과의 국경인 柵門에서 심양까지 넓디넓은 도로 양쪽에 버드나무를 심어 쭉 곧게 이어져 있는데, 이것이 전국 어디라도 그러하다고 한다. 이로 보자면 법령이 전국에 일률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연회에 배석한 이들이 모두 숙연히 소리도 없이 자리에 늦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듯 행동하는 것으로 보자면 규율이 엄격히 지켜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 이와 같이 표면적으로 청나라는 지금 태평하여 반석의 형세에 있는 듯하지만, 문제가 있다. 그것은 건륭제가 토목공사를 일으키고 여행을 좋아하여 신하들의 충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어떤 일에 대해서든 겉으로 보이는 근사함을 추구하고 있는 점이다. 이 때문에 신하들은 건륭제에게 아첨하는 노예와 같다. 건륭제의 아들들도 각각 황제가 될 만한 기량은 없는 듯하다. 일단으로, 건륭제가 사망하는 것과 같은 일이 생기면 천하는 매우 근심스럽게 된다. 이는 수십 년 내에 일어날 터이다. 그렇게 되면 심양에서 불과 200km 거리에 있는 몽골의 최강 부족 위쥐뮈친(烏珠穆泌)이 반란을 일으켜 심양 땅을 점거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다. 그러면 명 말 天啓 연간에 누르하치가 山海關 바깥을 점거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조선은 해로를 통해 북경에 조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조선은 다시 안심하고 잠들 수 없게 되리라.[5]

---

5) 趙顯命, 「瀋行日記」, 『歸鹿集』. "遼野無一片閑土, 秋穀蔽之, 人民之盛可知也. 皇帝今行, 用賞銀四百萬兩, 錦段稱之, 財用之足可知也. 諸王大臣, 平日居養必厚, 而萬餘裏驅馳, 風餐露宿而略無疲困色, 馬雖瘦敗, 一見鞭影, 騰突如矢, 士馬之精強可知也. 自柵門至瀋陽, 八九百裏之間, 挾大道植柳, 其直如弦. 蓋聞通天下皆然雲, 法令之齊一可知也. 宴時殿上下肅然無聲, 諸王自外入班, 時刻差晩, 遑遑疾走如不及, 朝綱之嚴肅可知也. 人民盛; 財用足; 士馬精強; 法令齊一; 朝綱嚴肅, 自外面見之, 可謂昇平磐石之固也. 然皇帝內興土木, 外事盤遊, 愎諫好勝, 大小政令專事要譽. 其君要譽, 故其臣以媚玩事之. 諸王大臣皆是庸奴. 皇帝四子, 十五歲八歲者, 矮短不揚, 人望不歸, 五歲四歲者, 生死姑未萌, 而皇帝同母弟和親王亦眇小輕佻. 其後事危凜甚矣. 一日宮車晏出, 天下事有不可勝憂者, 而遠不過數十年耳. 中原有事, 海西之黃[荒]唐船; 江邊之偸山賊, 有朝暮欄出之憂. 而蒙古諸部中, 烏珠穆伦[沁]最倔強, 而去瀋陽爲四百裏, 乘時竊據如反掌之易. 若然則天啓後, 水路之行將復有之. 東人不可復安枕矣."

이상, 조현명이 관찰한 중국(청)은 현재 물자가 풍부하게 보급되고 정령이 엄격하게 시행되어, 반석의 형세에 있다. 「심행일기」 중에서 "지금 聖朝는 태양이 중천에 있는 듯하다.[方今, 聖朝如日中天.]"라고도 말했다.[6] 그는 중국 山東省과 河南省에 재해가 발생했다는 정보를 얻고는 곧바로 통역을 파견해서 그 상세한 정보를 탐문했다. 그리하여 일부 지역에서 "굶주린 백성들이 집단을 이루어 부잣집이나 여행자를 약탈하고, 사람이 사람을 먹고 있다."라는 정보를 얻었다.[7] 하지만 이전이라면 조선에게 있어서 청나라가 멸망하리라는 희망으로 연결되어 기뻐할 만한 정보임에도 조현명은 일고조차도 하지 않았다. 이 총론에서는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았다. 청나라는 어떻게 보아도 내부로부터 붕괴할 것처럼은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조현명은 "천하의 근심거리가 수십 년도 지나지 않아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면밀히 읽어보면 "천하의 근심거리가 수십 년도 지나지 않아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 청나라에 내란이 일어나 와해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건륭제에게도 반드시 찾아오고 말 그 죽음을 의미했다. 청나라가 위태로운 점은 단지 한 가지, 건륭제가 아무리 유능한 전제군주라 하더라도 그가 사망하면 누가 뒤를 이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하나였다. 이 총론의 후반부는 건륭제의 결점을 예로 드는 듯 보이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만은 아니다. 이는 건륭제가 사망할 때까지는 중국이 내란에 의해 와해될 리가 없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조현명의 중국 관찰은 전체적으로 보자면 지극히 객관적이다. 중국 심양에서 정보수집도 적절히 행했다. 건륭제가 사망하면 몽골족이 반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상한 그 동향에 관해서도 조선에서 데려온 몽골어 통역관을 강희제가 건립한 願堂을 지키는 몽골 승려에게 파견해서 탐문하도록 했다. 「심행일기」 9월 5일에 보이는 몽골 정세 관찰은 이때 얻은 정보를 기초로 한 것이다. 또 국경 압록강 북측의 중국령 내, 대략 심양 동쪽 지역에 대한 상세

6) 趙顯命, 「瀋行日記」 8월 26일, 『歸鹿集』.
7) 趙顯命, 「瀋行日記」 9월 13일, 『歸鹿集』. "留金譯昌祚, 使之更探山東・河南被災狀. 昌祚與教授老父酬酢, 其人以爲, 今年山東・山西・河南旱害災同然, (…) 飢民聚黨, 掠奪富室及行人, 至於人相食."

한 지리정보와 몽골족의 정세가 「심행일기」 권말에 수록되어 있다. 이것은 북경의 중국 측 통역관인 徐宗順의 동생 徐宗孟이 두만강 중류에 위치한 會寧에서 매년 열리는 朝-中 교역을 위해 파견되어 심양에 이따금 왔을 때, 조선 측 통역을 파견해 상세히 탐문한 정보이다. 이때, 조선 측 통역은 서종맹이 소지하고 있던 「路程記」 또한 등사해서 가지고 돌아왔다. 또 서종맹에게 질문한 항목은 압록강・두만강 국경 밖의 중국령에 대한 정세에 해박한 李日躋에게 미리 준비하도록 한 것이다.[8] 이들 정보에 기초를 둔 관찰은 기존과 같이 중국에 곧 내란이 일어날 것이다, 또는 일어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단순한 희망적 관측으로부터 나온 것은 결코 아니다.

확실히 조현명 또한 수십 년 뒤에 천하에 근심거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다. 이것은 조현명의 중국 관찰이 한편으로는 종래의 전통적인 관찰을 이어받았기 때문이리라. 그러나 이는 반대로 유능한 건륭제의 치세에서는 천하가 편안하나 그 사후가 걱정된다고 말한 것으로, 이전의 연행사에 의한 관찰과는 크게 달라졌다.

3. 조선 내 정세와 영조의 反滿 의식

그러면 조현명에 의한 이와 같은 중국 관찰은 당시 조선 국내의 정국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일까. 또는 그의 중국 관찰은 서울 조정의 反滿 의식을 어떤 식으로 반영했던 것이었을까?

우선 주목해야 할 점은, 일부이기는 하지만 당시 조선 국내에서 건륭제가 심양에 오는 것이 단순히 선조의 묘소에 참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인식한 부분이다. 적어도 당시 국왕 영조는 그러했다. 그러므로 이번 조선 측에 의한 심양문안사의 파견도 매년 북경에 파견한 통상적인 연행사와 같은 것이라고 간주할 수 없다. 다음으로 심양문안사가 파견되었을 즈음에 조선 조정에서 이루어진 문답과 국내 정세를 설명하겠다.

---

8) 趙顯命, 「瀋行日記・自瀋陽距我國會寧府程途」, 『歸鹿集』. "右問答諸條, 李台君敬出題, 使書狀探問, 而記來者也. 附之卷末, 以備後考云爾." 李君敬이 李日躋라는 사실은 「瀋行日記」의 「燕超亭記」에 보인다.

조현명이 漢陽(서울)을 출발한 것은 7월 6일이었으나, 그 3개월 전의 『조선왕조실록』 영조 19년 4월 5일 기사에는 대략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다. 이날 영조는 조정에서 여러 신하들을 내보낸 후, 영의정 金在魯, 좌의정 宋寅明, 우의정 조현명만을 남겨놓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영의정이라는 것은 宰相으로서 정부의 제1인자이므로 이들 3인은 최고 수뇌이다. 영조의 말은 다음과 같다.[9]

> 연행사의 보고에 의하면, 청나라 황제[胡皇]가 그의 모친[太后]을 데리고 북경의 북쪽 관문 居庸關으로부터 몽골 땅[熱河]을 통과해서 심양에 온다고 한다. 청나라는 백 년 지속되어 명운이 이미 끝났고, 건륭제의 사람됨도 강희제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 지금 북경에서 멀리 만주 땅[關外]에 찾아오는 것은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다. 우리 조선에는 태평성대가 오래 이어졌다고는 하지만 지금 이때를 맞아 이 조정을 시작으로 전국에까지 '自强의 道'를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경 압록강 부근의 지방관과 그 방면 군사 통솔관으로는 적절한 인물을 선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대해 영의정 김재로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 강희제의 때에도 심양에 성묘를 온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 건륭제가 심양에 오는 것도 舊例를 따르는 것에 지나지 않으니,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강의 도는 당연히 행해야 할 일입니다만, 지방관이나 통솔관을 이유도 없이 경질하면 인심이 반드시 동요하게 될 것이므로 천천히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영조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했다.

> 청나라 황제가 심양에 오는 것이 지금까지의 상례라고는 하나, 현재 청나라의 상태는 이전과 비교할 것이 못 되므로 걱정이다. 예상하지 못한 일에 대비하여 조정은 미리 준비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

---

9) 『朝鮮王朝實錄』 英祖 19년 4월 戊子. "上命留三相, 敎曰: '頃聞節使之言, 胡皇將其太后, 自居庸關, 過蒙古地, 當來瀋陽云. 百年之運已過, 乾隆之爲人不及康熙, 而今乃遠來關外, 甚可慮也. 我國昇平日久, 今當此機, 宜自廟堂, 先盡自强之道. 江邊守令及西路帥臣, 亦宜擇送矣.' 在魯曰: '康熙時, 亦以拜墓有瀋陽之行, 此亦似遵舊例, 何必過慮也. 但自强之道, 固不可不爲, 而至於守令·帥臣, 無端遞改, 則人心必騷擾, 徐爲之圖可矣.' 上曰: '瀋陽之行, 雖有古例, 彼國時象, 非昔之比, 終有可憂. 凡係不虞者, 廟堂宜預爲措置也.'"

건륭제가 심양에 온다는 것을 알고 영조가 염려한 것은 이에 의해 조선이 피해를 입게 되지 않을까 하는 일이었다. 그렇지만 심양은 조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데다, 황제가 선조의 묘에 참배하러 오는 정도의 일로 걱정할 필요는 없을 터이다. 더구나 황제가 심양까지 행차하므로 조선은 도로정비 등을 위해 인원을 파견해라, 또는 자금을 조달해라, 라는 등의 청나라 측 명령은 전혀 없었다. 건륭제 쪽에서 심양에 문안사를 보내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영조는 무엇을 염려했던 것일까?

영조가 염려한 것은, 현재의 우리들로서는 거의 상상도 할 수 없는 걱정이었다. 청나라가 쇠약해져 북경의 정권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 만주족이 그들의 발상지인 만주로 도망쳐올 것인데, 그때 그들은 현재 길림성 닝구타(寧古塔)까지 달아나 여기를 근거지로 삼을 것이며, 도망 경로가 되는 것은 북경에서 나와 산해관을 넘은 뒤 심양을 경유해 닝구타에 직진하는 통상 경로가 아니라 中-朝 국경의 중국 측에 위치한 鳳城 부근에서 조선과의 국경을 흐르는 압록강 부근을 거슬러 분수령인 長白山(白頭山)에 이르러 거기에서 닝구타로 향하는 루트를 취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패잔병이라고는 하지만 지금까지 두려워 반항도 하지 못해왔던 만주족 대군이 국경을 통과하게 되므로 걱정이 당연할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어째서 심양을 직진해서 닝구타에 진군하지 않고 조선과의 국경을 경유하는가. 심양의 서북쪽은 몽골족의 강력한 부대가 장악하고 있어, 기진맥진한 만주족 군대를 그곳에서 저지하리라고 예상 가능했다. 만주족이 심양 부근에서 몽골족을 돌파해서 진군할 수 없는 한, 우회해서 압록강을 거슬러가는 루트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영조의 시책이 이 만주족 닝구타 도주설에 근거를 둔 점은, 여기에 보이는 "청나라의 명운은 백 년을 넘었다."라는 설명, 압록강 연안의 지방관과 西路, 즉 黃海道와 平安道의 군사사령관으로서 적절한 사람을 선발해야 한다는 주장, 더욱이 그 후에 대한 논의의 전개로부터 보면 명확하다.

이와 같은 생각이 조선에서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조선왕조실록』에 근거하는 한으로는 적어도 1680년(강희 19, 숙종 6)에는 명료하게 보인다.[10] 이로부터 7년 전인 1673년(강희 12, 현종 14)에 중국에서

는 오삼계가 반란을 일으켰다. 1678년에 오삼계가 사망했다는 뉴스는 이미 조선에 전해졌으나 조선에서는 여전히 청나라가 패배하리라는 희망적 관측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 이때의 의론을 근거로 보자면, 청나라의 패주병이 조선 국경 압록강을 통과할 것이라는 예측은 이보다 20년 이상 이전에 북벌을 검토했던 국왕 효종이 제창했었다. "오랑캐에게 백 년의 운은 없다." 즉 "만주족의 천하는 백 년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조선에서 일찍부터 속담이 되었다. 1712년(강희 51, 숙종 38)에 조정에서 행해진 의론에 의하면 어떤 신하는 숙종에게 "오랑캐에게 백 년의 운은 없다."라는 속담을 인용하면서 청의 패잔병이 조선 국경을 통과할 것이라고 진술하고 청나라가 조선에 대해 조공물품을 감액한 것 또한 그 시기에 조선의 조력을 구하기 위함이라고 말하며, 조선 국내인 薛罕嶺에 청나라 측 조사원의 발을 들이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11] 이때에 청의 패잔병이 압록강을 거슬러 올라가 닝구타로 도주하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은, 그 전년부터 강희제의 명령으로 묵덩(穆克登)이 국경지대의 조사를 위해 와 있었기 때문이다.

강희제가 사망한 1722년(강희 61, 경종 2)이 되면 또다시 패잔병이 조선 국경을 통과하는 것이 걱정거리가 되었다. 강희제가 사망했다는 뉴스가 조선에 전해지자, 곧바로 "중국에 내란이 일어난다."라고 염려되어, 패잔병이 몽골족에 저지되어 심양을 직진해서 행군하지 않고, 조선과의 국경을 경유하리라는 주장이 있었다. 이것을 주장한 사람은 "내란은 8할에서 9할의 확률로 일어날 것."이라고 추측했다.[12] 영조가 가졌던 것과 같은 걱정은 사실은 유

10)『朝鮮王朝實錄』肅宗 6년 3월 甲午. "許積發上勅白頭山事而曰: '昨日金錫胄聞此而曰: 「此正如孝廟下教矣.」 孝廟嘗曰: 「吾豈不欲往征之哉? 恐其敗歸時, 必受禍也.」 或請其由, 孝廟曰: 「是其勢然也. 其歸路必見阻於蒙古, 彼將自義州由陽德・孟山, 入咸鏡道, 轉向其土矣.」 今日事勢, 雖不可知, 蓋觀其意, 欲取路於我, 歸其土之意也. 托以致祭, 以觀我氣色.'"

11)『朝鮮王朝實錄』肅宗 38년 2월 庚辰. "引見大臣・備局諸臣. 右議政趙相愚曰: '彼咨文, 又有差官往長白之語. 我國陸路之難通, 壬申回咨得請, 水路之難通, 昨年穆克登, 亦已備知. 急修回咨, 備陳水陸俱難得達之狀, 則或不無停行之道.' (…) 吏曹參議李光佐尤力言曰: '語云, 胡無百年之運. 彼數十年內, 待我過厚, 至於減貢者, 必有其故. 蓋百年中土, 狃於錦繡・肉, 一朝還歸漠北, 勢必難堪. 早晩敗歸時, 緩則欲自魚鹽物産, 以至土地・民人, 無不取資於我, 急則欲取路於我西北, 故此行將預察山川隘塞, 道里遠近也. 內地薛罕嶺路, 決不可許矣.'"

12)『朝鮮王朝實錄』景宗 2년 12월 壬子. "提調李台佐曰: (…) '大抵中國有事之日, 卽我國受弊之兆也. 康熙旣沒之後, 禍亂之作, 十居八九, 內亂旣作, 而或他敵復生, 或眞人始起, 則彼不可仍據中土, 必以寧古塔爲巢

능한 전제황제 강희제가 사망했던 당시에 이미 체험했었던 바다.

영조는 청나라가 시작되어 백 년이 이미 지나 청나라의 運氣와 명운이 다하려고 하는 것처럼 생각했다. 게다가 건륭제는 강희제 정도의 통치자 자질이 결여되어 있는 듯 보였다. 적어도 영조는 신하들에게 그런 식으로 말했다. 만주족이 청나라를 건국하고 산해관을 넘어 북경에 진입, 명나라를 무너뜨린 것은 1644년이었으므로, 1743년은 그로부터 딱 백 년이 지난 셈이었다. 마침 이 해에 건륭제가 대군을 이끌고 심양까지 왔으므로 이와 같은 걱정을 표출했던 것이다. 청나라가 중국을 통치하기 시작한 뒤로부터 백 년이 지나 그 명운이 다해 내란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조현명은 서울을 출발하기 직전에 마침 국왕이 말했던 이러한 걱정, 조정에서 이루어진 문답의 영향을 받아 건륭제의 사람됨을 논하고 몽골의 정세를 탐색했으며, 심양에서 닝구타까지의 지리정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명백히 그의 중국 관찰은 당시 조선 정국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조현명이 심양을 향해 서울을 출발한 것은 이미 서술했듯이 7월 6일이었다. 『조선왕조실록』 영조 19년 7월 己丑(9일)에 의하면 이즈음 조선에서는 건륭제가 곧 심양에 올 것이라고 하므로 이에 관한 유언비어가 돌아다녔다. (訛言多起) 이것은 실제로는 영조 자신이 초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어서 다음과 같은 기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영조는 대신들을 소집해서 자강책, 즉 국방증강책, 치안증강책을 계획했다. 이때 영조는 "皇朝인 명나라는 李自成의 반란에 의해 멸망했지만, 만일 楊漣과 같은 인물이 그때 있었더라면 멸망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했다.[13] 양련은 명 멸망 약 20년 전에 天啓帝의 환관 魏忠賢이 전권

穴. 夫山海關之外, 東北距瀋陽, 瀋陽西北, 皆蒙古地方, 蒙古若乘其殘憊, 以一部截其歸路, 則彼進不得達於寧古塔, 退不得復入山海關, 其勢或迸於鳳凰城, 或南出於金復州, 或出於曖陽. (…) 若自此取路, 掠得淸北諸郡, 直由薛罕嶺, 由咸鏡道, 復渡豆滿而北, 則可達於長白山之側, 而爲寧古塔之捷逕. 此卽向年胡差穆克登所覘處也, 此其一可憂也.'"; 英祖 7년 6월 乙未. "前獻納李日躋曾論西北界無防守間諜, 事多踈虞, 請依宋朝韓・富故事, 使廟堂之臣分掌西北, 以統領之. 上以其疏, 下詢諸臣. 領議政洪致中曰: '臣以評事, 往登白頭山, 則其時穆克登來定地界, 而此山與寧古塔, 隔一衣帶水, 脫有事變, 彼必假道. 北旣接近胡境, 西亦隔以一江, 如能得人, 分掌如周之東西陝, 則豈不好矣. 而韓・富未可易得也. 今之廟堂, 亦宋之樞密, 不必別定名號也.' 上曰: '今之諸臣, 常有勿忘西北之心則可也.'"

을 장악하여 정치를 혼란스럽게 했을 당시 의연히 위충현에 반대했다가 결국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써 옥중에서 살해당한 인물이다. 영조는 지금 건륭제가 압록강까지 올지도 모르기에 조선이 존망의 위기에 있다고 위기감을 부채질하면서 신하들에게 분발을 촉구한 것이다.

더욱이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8월 17일에 영조는 경기도관찰사 柳儼을 조정에 불러 서울의 방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경기도관찰사는 현재 일본으로 말하자면 도쿄도지사(東京都知事)에 해당하는데, 그 관할구역은 치바현(千葉縣), 카나가와현(神奈川縣), 사이타마현(埼玉縣) 전역을 포함하는 것에 상응한다. 이즈음 서울 내외에는 건륭제의 원정에 대한 유언비어가 크게 일어나 있었다. 이를 우려한 영조가 서울을 방어할 책임을 지는 최고 장관을 불러내어 대책을 자문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문답은 다음과 같이 흥미로운 것이었다.

> 유엄: 우리나라가 외국의 침략을 걱정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영조: 무슨 말인가?
> 유엄: 우리나라는 약소국입니다. 몽골이 온다면 청나라 만주인에 대해 하는 방법과 같이 대응하면 됩니다. 더 서쪽의 몽골[14]이 온다고 해도 그와 같이 하면 됩니다.

영조는 이 말에 답하지 않고, 注書(承政院 소속 서기관)에게 "이 문답은 전부 기록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주의를 주었다.[15]

그렇다 하더라도 유엄은 솔직하게 의견을 말한 것이었다. "몽골이 온다면 지금까지 청나라 만주인에 대해 해왔던 방식대로 대응하면 된다."라는 것은

---

13) 『朝鮮王朝實錄』 英祖 19년 7월 己丑. "上引見大臣・備堂. 時淸皇北巡, 訛言多起. 上曰: '命卿等入侍, 亦欲講自强策也.' 領議政金在魯曰: '安不忘危, 乃所以久安也. 別擇帥臣, 申嚴邊備, 亦固圍之術也.' 左議政宋寅明曰: '國治則外賊不足慮, 而國亂則蕭墻之變, 亦可憂也.' 上曰: '皇朝以李自成之亂, 終至於亡, 若使楊漣輩在朝, 則豈至是乎?'"

14) 『영조실록』의 원문은 '西韃'로, 타타르(Tatar)를 지칭한다.

15) 『朝鮮王朝實錄』 英祖 19년 8월 丁卯. "上召見京畿監司柳儼. 時有瀋陽問安使之行, 京外騷屑, 訛言大行, 上甚憂之, 問儼以守都城・入江都便否. 儼對曰: '我國不必以外寇爲慮.' 上曰: '何謂也?' 儼曰: '我國弱國也. 蒙古來, 則待之如淸人, 西韃雖來, 亦如之而已.' 上不答, 顧謂注書曰: '此等說, 不必盡記矣.' 史臣曰: '我國固弱國也. 然儼之所對, 何其無禮也. 足令識者寒心. 宜乎, 上之不答也.'"

간단히 말하자면 무력으로 저항하지 않고 몽골의 신하가 되어 조공을 바치고 책봉 받는 대상을 바꾸어 그 지배하에 만족하면 된다는 말이다. 『조선왕조실록』에 이 말을 기록한 實錄編纂官도 이것은 너무 심한 말이라고 생각한 듯,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이 약소국이다. 하지만 유엄의 대답은 너무 무례한 것이 아닌가. 영조가 답하지 않은 것도 당연하다."라고 감상을 기록했다. 실제로 역대 국왕의 언동을 자세히 기록한 『승정원일기』에는 이날 영조가 유엄과 수도방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지 않았고, 위에 서술한 유엄의 말은 기록하지 않았다. 그러나 『승정원일기』에는 이를 기록하지 않은 대신에 유엄과 영조가 다음과 같이 문답을 나누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이 역시 흥미롭다.16)

> 유엄 : 예로부터 망국이라는 것은 반드시 여러 대에 걸쳐 황제가 失德을 계속하여 비로소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희제, 옹정제, 건륭제 3인이 모두 失德은 없으므로 갑자기 망하는 등의 일은 없을 듯합니다.
> 영조 : "郡이 무사하면 村이 무사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중국에 재난이 있으면 우리나라 역시 고생하게 된다.
> 유엄 : 조정 밖이 대단히 소란스럽습니다. 폐하께서는 이러한 명령을 빈번히 내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승정원일기』에서도 이 뒤에 영조가 "이러한 이야기는 전부 기록할 필요 없다."라고 주서에게 명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유엄이 "우리나라는 약소국입니다." 운운한 것이 『승정원일기』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이 때문이리라. 먼저 소개한 영조의 말, 즉 4월 5일에 영의정 김재로 등 3인에게만 말한 "청나라는 백 년 지속되어 명운이 이미 다했고, 건륭제의 인물됨은 강희제에 미치지 못한다." 운운한 것도 『승정원일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 말의 중요성을 감안하자면 아마도 영조가 주서에게 기록하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리라.

---

16) 『承政院日記』 英祖 19년 8월 17일. "[柳儼]曰: '(…) 而從古亡国者, 必數代失德, 然後始亡. 康熙・雍正・乾隆皆無失德, 似不至於速亡矣.' 上曰: '常談不曰「郡無事村無事」乎. 中原有難, 則我國亦將勞苦矣.' 儼曰: '外間多騷屑, 聖上不必以此等事, 頻頻下敎矣.' 上顧謂臣朝潤曰: '此等說話, 不必盡書之矣.'" 朝潤은 이날 서기를 담당한 假注書 김조윤이다.

영조가 건륭제가 심양까지 온다고 하며 위기감을 부채질하여 국방의 강화를 도모하고자 한 정책에 대해 일부 신하는 회의적이고 냉정했다. 이는 이미 살펴본 영의정 김재로의 발언에서도 볼 수 있다. '만주족에 대한 얄미움'이라는 심정은 조선에 확실히 오래 지속되었다. '反滿', '反淸'은 조선의 국시로 계속되어, 영조의 말도 이를 전제로 하여 나온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유엄이 영조에게 노골적으로 말한 대로, "우리나라는 약소국이므로 중국이 만주족으로부터 몽골족의 세계로 변한다면 그와 같이 대응하면 된다." 또는 "강희, 옹정, 건륭 모두 失德이 없다. 청나라는 간단히 망하지 않는다."라고 단언하는 사람이 있었다. 영조는 이 말에 거꾸로 부채질 당해, "郡이 무사하면 村이 무사하다는 말이 아니겠는가."라고 말하고 만 것이다. 이 경우의 郡은 물론 중국을 가리키고, 村은 조선을 가리킨다. 중국 건륭제 初年 즈음이 되어서는 조선에서는 "중국이 무사하면 조선도 무사하다. 중국이 안정되면 조선도 안정된다."라고 국왕 자신이 말하며, "중국에 재난이 있으면 우리나라도 고생한다."라고 솔직한 말을 누설하는 데 이르렀다. '反滿', '反淸'의 국시로 보자면, 부채질 당했다고는 하지만, 국왕이 결코 말해서는 안 되는 말을 누설하는 데 이른 것이다.

한편, 조현명이 서울에 돌아온 것은 10월 27일이었다. 당일 곧바로 조정에 입궐하여 歸朝 보고를 했다.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영조가 조현명에게 "중국의 정황은 어떠했는가?"라고 질문한 것에 대해 조현명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 외견적으로는 태평한 듯하지만 내실은 알지 못하는 새 혼란하여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수십 년도 되지 않아서 천하에 반드시 큰 난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정령은 모두 건륭제가 좋은 겉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에서 나올 뿐이고, 신하들은 아첨하는 말을 할 뿐이며, 대신들은 용렬합니다. 조정에 있는 신하들이 경박한 것이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이에 대해 영조는 "중국에 내란이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걱정거리이다."라고 말했다.[17]

17) 『朝鮮王朝實錄』 英祖 19년 10월 丙子. "上引見大臣・備堂. 瀋陽問安使趙顯命・書狀官金尙迪復命, 上

여기 보이듯이, 조현명의 대답은 전에 보았던 「심행일기」에 기록된 중국 관찰의 후반 부분을 따로 떼어낸 것이라고 해도 좋다. 중국에서 정령이 엄격하게 행해지고 있는 점, 건륭제가 유능하다는 점은 전혀 기록되지 않았다. 이 보고만을 보면 "수십 년도 되지 않아 천하에 반드시 큰 난이 있을 것입니다."라는 말이 기실 유능한 전제군주 건륭제에게도 반드시 찾아올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은 누구도 알 수 없으리라. 「심행일기」라는 사료가 없었다면 누구라도 조현명의 레토릭에 걸려들 수밖에 없을 터이다. 혹 기록으로 남은 사료에 속을 수밖에 없다. 이 부분도 『승정원일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승정원일기』에는 조현명이 건륭제에게 하사받은 물품들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 등의 문제에 대해 상세한 기록이 보이지만 조현명이 올린 말은 "云云" 두 글자로 치환되었고, "중국에 내란이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걱정거리이다."라는 영조의 말에 이르러서는 한 글자도 적혀있지 않다.[18] 이 또한 영조가 주서에게 기록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조현명은 당시 국내 정국을 엿보고 국왕 영조의 언동에 따라 중국 관찰을 착실히 행하여 이를 일기로 남기는 한편으로 조선국왕에게는 "청나라는 현재 반석의 형세에 있어 무너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라고 정면으로 반론하는 일 없이 주변의 상황을 읽을 수 있는 실제적이고 노련한 정치가였다.

조현명이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대로 대답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째서일까. 혹, 自强을 주장하여 국방을 강화하고자 한 영조에게 아첨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혹 자신이 보았던 중국 관찰을 그대로 보고하지 않고, 청나라가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것만을 끄집어내어 보고하는 전통이 아직 이어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또 자신의 중국 관찰을 정직하게 말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느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실제로 다음 11월이 되면 조현명은 심양에서 건륭제에게 지나치게 비굴한 태도를 취해 아첨했다는 이유로 공격당해, 부득이하게 변명을 하게 되었다. 그 공격은 완전한 '小中華'사상, 즉 지금 변발을 하지 않고 정식의 관을 쓰고 정식의 의복을 입고 있는 것은 조선뿐이라는 '反滿', '反淸', '한

召見之, 問顯命曰: '彼中事何如?' 對曰: '外似昇平, 內實蠱壞. 以臣所見, 不出數十年, 天下必有大亂. 蓋政令皆出要譽, 臣下專事諛說, 大臣庸碌, 而廷臣輕佻, 甚可憂也.' 上曰: '中原之有亂, 我國之憂也.'"

18) 『承政院日記』 英祖 19년 10월 27일. "上曰: '彼中事仔細陳達可也.' 顯命曰: '云云.' 上曰: '獨特記事官書之, 注書勿書焉.'"

족 멸시'라고 하는 국시로부터 나온 비판이었다.[19] 어느 쪽이든 틀림없는 것은 조현명이 심양에 여행하여 직접 행한 중국 관찰은 기존과 같은 주관적인 희망적 관측이 아니라 매우 객관적이었다는 점, 이와 반대로 조선 조정에서 진술한 중국 관찰은 한편으로는 그 객관적 관찰을 은폐하고 '反滿', '反淸'을 국시로 해온 백 년의 전통에 의해 행해졌다고 하는 모순된 것이었다.

4. 조선 연행록에서의 「심행일기」의 위상

그렇다면 조현명에 의한 중국 관찰은 그 뒤의 연행사에 의한 중국 관찰과 비교할 때 어디에 위치하는 것일까?

홍대용의 1766년 중국 여행이 조선 지식인에 의한 중국 관찰을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였다는 점은 이미 서술했다. 이는 조현명의 심양 여행의 23년 뒤의 일이나, 여기서는 나아가 그 64년 후인 1830년(道光 10, 순조 30)에 洪敬謨가 기록한 연행록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그의 연행록인 『燕雲遊史』에 대해서도 이미 해제를 작성한 일이 있어, 거기에도 이에 대해 기술했다.[20] 『연운유사』 제3책의 「淸開國記」에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 [청나라는] 매우 공변되고 지극히 올바르며, 綱常을 부지하고 심어, 고금 이래로 또한 이와 같은 나라는 조금도 들어보지 못했다. 게다가 그 정치와 법제는 오로지 간략함을 숭상하고, 文으로 다스리고 武의 계책을 냄이 각기 그 요체를 얻었다. 천하의 머리카락을 깎고 천하의 옷깃을 왼쪽으로 함에 이르러서는 자신들 집안의 제도를 바꾸지 않은 것이니, 또한 큰 계획과 원대한 도략인 것으로, 外夷라고 비난해서는 안 될 듯하다. 그리고 실로 上天이 임명한 命吏[천자]가 아니라면 어찌 이와 같이 성대할 수 있었겠는가. 이는 하늘이 이 사람을 낳은 것이 우연이 아니며, 우연이 아니면 반드시 도와주는 바가 있음을 알 수 있으니, 그 도와주는 바라는 것은 즉 하늘이 천명을 내림이다. 하늘이 천명을 내리는 것은 華夷와 夷狄의 구분에 있지 않고 德이 있는지를 살피는 것임이 명백하다.[21]

---

19) 『朝鮮王朝實錄』 英祖 19년 11월 丁未; 12월 甲戌.

20) 夫馬進, 앞의 책, 2015, 478면.

21) 洪敬謨, 「淸開國記」, 『燕雲遊史』. "[淸]大公至正, 扶綱植常, 自古今以來, 亦未知或聞也. 且其政謨法制, 專尙於簡, 文治武略, 各得其要. 至於薙天下之髮・左天下之衽, 不變我家制度者, 亦是宏謀遠略, 殆不可以外

여기 보이듯이 청이 매우 공변되고 지극히 올바름(大公至正)으로써 근본적인 제도를 견고히 마련한 점은 역대 왕조와 비교해보아도 전대미문이라고 치켜세우는 데까지 이르렀다. 만주족이 중국의 지배자가 된 것은 천명을 받은 것으로, "하늘이 명한 이는 中華이건 夷狄이건 관계없이, 德이 있느냐 없느냐일 뿐이다."라고 서술했다. 조선에서 '소중화'사상, 한족 멸시의 근거로써 이때까지 강조되어 온 변발의 강제 문제에 대해서도 "만주의 제도를 바꾸지 않으려는 깊은 생각으로, 이것을 가지고 만주족을 '外夷'라고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지금까지의 조선의 국시가 여기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부정되고 있다.

청이 천하를 얻은 것이 천명에 의한 것이라는 생각은 조현명의 중국 관찰에 이미 맹아가 보인다. 조선 측 통역이 황릉, 즉 누르하치의 福陵(東陵) 및 홍타이지의 昭陵(北陵)을 멀리에서 바라보고는 "산세가 이상하다.[山勢異常]", 다시 말하자면 능묘에서 이상할 정도로 신령스러움을 느꼈다고 보고했을 때의 감상이다.

> 내가 생각하기에, 이 끝없는 요동 벌판은 鐵騎가 돌격하기에 알맞고, 산세 또한 용이 날고 봉황이 춤추는 듯하여 發祥의 땅이다. 하늘이 준비해둔 것이 이와 같다. 명나라에 비록 광산과 세금의 폐단과 세 안건에 얽힌 싸움이 없었다 하더라도 또한 장차 어찌할 수 있었겠는가.22)

조현명은 통역으로부터 "산세가 이상하다."라고 듣고, 청군이 명군에 승리한 것은 하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광산과 세금의 폐해(鑛稅之弊)'라는 것은 명대 萬曆 연간에 환관 세력이 광산의 개발과 관세의 징수로 전국을 피폐하게 했던 일을 말한다. '세 안건에 얽힌 싸움(三案之鬨)'은 天啓 연간에 궁중에서 발생한 세 개의 사건을 가지고 환관파와 東林黨이 피투성이의 싸움을 했던 것을 말한다. 이미 서술했듯이, 영조가 "皇朝인 명나라는

夷論之. 而苟非上天所置之命吏, 豈能若是之盛矣. 是知天之生是人也不偶, 而不偶則必有以相之者, 其所以相之者, 卽天之所命也. 天之所命, 不在於華夏夷狄, 而監於有德也, 明矣."

22) 趙顯命, 「瀋行日記」 9월 17일, 『歸鹿集』. "餘念設此無邊遼野, 以便鐵騎騰突, 山亦龍飛鳳舞, 以爲發祥之地. 天之所以準備者如此. 明朝雖無廣稅之弊・三案之鬨, 亦將如之何哉."

이자성의 난으로 멸망했지만, 만일 楊漣과 같은 사람이 그때 있었더라면 멸망하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했던 말의 양련은 이 '三案'에 관계된 당쟁의 연장선상에서 살해당한 인물이다. 따라서 조현명은 여기서는 영조의 시각에 의문을 갖고, 명나라가 멸망하고 청나라가 천하를 얻은 것은 천명에 의했다고 말한 셈이다. 조현명은 이미 명나라가 '鑛稅之弊'나 '三案之鬨'에 의해 멸망했다는 당시의 속설을 극복했으며, 청나라의 發祥이 천명에 의한 것이라는 생각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아도 좋으리라.

5. 맺음말

조선연행록을 읽는 사람은 종종 여기에서 격렬한 反滿 의식을 읽어내게 된다. 변발을 하지 않고 명나라의 의관을 입은 자신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한족을 경멸하는 의식을 읽어내게 된다. 우리들은 그 격렬한 反滿 감정이 지금까지는 까마득히 열등했던 민족이라고 보았던 만주족에 거꾸로 지배당했으며 두 차례에 걸친 침략이 매우 처참했던 사실에서 유래했다고 해석하고 이 설명에 납득한다. 그리고 그들의 와신상담하는 생각이 얼마나 강한 것이었던가 상상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기에서 보았듯이 국왕 영조가 보여준 反滿 의식은 만주족과 전투하는 일이 아니라, 조선이 만주족의 도피행에 의해 입을 손해를 걱정한 것임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철저한 反滿 의식이 있다고 하면, 만주족이 중국 국내에서 내란을 만나 심양을 정면 돌파하지 못하고 압록강에 우회하여 패주할 때, 만주족에 대한 여러 해의 원한을 풀고 와신상담의 생각을 지금 실현시키기 위해 무기를 들고 압록강 연안에 매복했다가 습격하자는 논의가 당시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러나 국왕 영조의 발언으로부터는 그러한 움직임은 전혀 읽어낼 수 없다. 그는 오히려 "郡이 무사하면 村이 무사하다고 하지 않는가. 중국이 안정되면 조선도 안정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백 년의 운'이 여기서 다하는 것이 거꾸로 성가신 일이라는 것이다. 영조의 경우 국내의 통치를 견고히 하기 위해 '청나라 백 년의 운'이라는 反滿 의식을 이용한 것처럼 보인다.

이데올로기라는 말은 '허위의식'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23] 마찬가지로 현실을 초월하고자 하는 의식인 유토피아가 현실을 타파하려는 방향성을 지닌 데 비해, 이데올로기는 오히려 현실을 은폐하려는 의식이라고 본다. '백 년의 운'이라는 것에는 反滿 의식이 있는 듯 보이면서도, 영조의 경우는 현실을 은폐하여 국내 지배를 강화하고자 해서 거꾸로 청나라의 지배가 안정되기를 바란 것이었다. 그의 反滿 의식이 이데올로기이자 허위의식이라는 점은 당대 재상 김재로조차 간단히 간파할 수 있었다. 김재로는 조정에서 "自强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만, 지방관이나 군사 통솔관을 이유 없이 경질시키면 인심이 반드시 동요하게 됩니다. 신중히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영조의 의견에 은근히 반대했다. 이것은 영조의 말에 '거짓말'이 포함되어 있어, 이것이 허위의식에서 발현된 것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 경기도관찰사 유엄이 "조선은 약소국입니다. 몽골족이 오면 지금까지 청나라 만주족에 대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대응하면 됩니다."라고 무력저항하지 않고 그 조공국이 되면 된다고 은근히 말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이 사료에 거의 남지 않은 말을 통해 국왕 영조를 도발하며 그 본심을 토로한 것, 이는 허위의식임을 간단히 간파했기 때문이다.

조현명은 「심행일기」에서 만주족이 발흥해서 중국을 지배하게 된 것은 하늘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그가 反滿을 주장하여 발설했는지 아닌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국왕의 앞에서 한 중국 보고가 어찌되었든 간에 '백 년의 운'이 다한 듯하다고 겉으로 꾸민 이상, 이 또한 허위라고 말할 수 있으리라. 이와 같은 허위의식을 '남을 속임으로써 자신을 속이는 것', '음흉(陰祕)하다'라고 철저히 혐오한 것은 조현명보다 40년 뒤에 태어난 洪大容이었다.[24] 홍대용 자신은 1765년(건륭 30년, 영조 41년)에 연행을 떠나, 적어도 이듬해에 중국의 지식인과 필담을 나눈 단계에서는 지극히 강한 反滿 의

23) Mannheim, 高橋徹・徳永恂 譯, 『イデオロギーとユートピア』, 世界の名著 56, 東京: 中央公論社, 1971.

24) 夫馬進, 「洪大容『醫山問答』の誕生」, 앞의 책, 2015, 410면; 洪大容, 「雜詠十首」(1770年, 乾隆三十五年, 英祖四十六年), 『乾淨附篇』 卷一. "欺人以自欺, 俯仰能無愧. 須知名外名, 乃是利外利. 憧憧隱微間, 安排足陰祕. 褊心実不忍, 中夜發驚悸. 安得眞實人, 共遊眞實地."

식의 소유자였다.

조선연행록의 세계에는 조선 지식인이 지녔던 정신세계의 정수에 가까운 기록이 종종 등장한다. 단순히 읽으면 우리들이 간단히 속고 말 기사도 많다. 그러나 이것은 연행록에 한정되지 않고, 사료 역시 언제나 그러하다는 점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역사연구자의 임무 중 한 가지는 그 허위와 허구가 존재함을 간파하는 것이다. 우리들은 조선연행록을 단순히 신기한 특수 사료로서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인류의 중요한 지적 재산의 하나로서 보다 다양한 사료와 연결시켜 추가적으로 연구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 日文本

朝鮮燕行録の世界
―河合文庫所蔵趙顕命『帰鹿集(瀋行日記)』に見える中国観察と国王英祖の反満意識―

一.

私はこれまで、朝鮮燕行使と朝鮮通信使および東アジア国際関係史を研究してきた。私の研究はあくまで歴史研究であり、この意味で私は文献研究の単なる一利用者に過ぎないが、一方で日本に現存する燕行録を紹介し解題を加えたことがある。

本日ここで紹介する趙顕命『帰鹿集(瀋行日記)』についても、すでに簡単に紹介した。それは韓国にも現存しないようであり貴重である[1]。私はそこで、私が関心を持ついくつかの問題に限って解題を加えた。本日の報告では、「解題」で書いたことは基本的にすべて述べない。ここでは述べるのは第一に、趙顕命「瀋行日記」に見える彼の中国観察が、中国を清朝が支配した三百年近くの間に数多く残された燕行録の中で歴史的にどこに位置するのか、という問題についてである。そして第二に、当時国王であった英祖の反満意識がどのようなものであり、それが趙顕命の中国観察にどのように関係するのか、という問題についてである。

今回報告するに当たって、私は初めて河合文庫本『帰鹿集』と韓国奎章閣本『帰鹿集』(『韓国文集叢刊』 第212・213輯所収)とを全冊にわたって詳細に比較検討したが、前者に含まれる「瀋行日記」が後者に含まれないだけではなく、両者に収録される詩と文には多くの出入のあることを知った。しかしそれら文献研究に属することは、本日述べる主題とは関係がないのですべて省略する。

---

1) 夫馬進,「日本現存朝鮮燕行錄解題」,『朝鮮燕行使と朝鮮通信使』, 名古屋, 名古屋大学出版会, 2015, 442-446面.

二.

趙顕命が瀋陽問安使正使として瀋陽へ行ったのは、1743年(乾隆八年、英祖十九年)であった。使節の目的は清の乾隆帝が北京から熱河の離宮を経て、さらに先祖の墓参りのために瀋陽へ来ると朝鮮側が聞きつけ、朝鮮国王英祖の名代としてご機嫌伺いをすることであった。彼の中国観察がどのような特色を持つものであり、また歴代燕行使による中国観察の中でどこに位置するのかを明らかにするため、趙顕命が瀋陽へ行くまで朝鮮では中国清朝と満州族をおおよそどのように観察してきたのかを簡単に述べておこう。

中国では明末に当たる1627年と1636年、朝鮮は満州族の後金ついで清に二回にわたって侵略された。とくに1636年の侵略では被害甚大であり、多数の人々が満州の地に捕虜として連行され奴隷とされただけではなく、朝鮮国王はソウルまで進軍してきた皇帝ホンタイジ(太宗)の前で無条件降伏させられた。朝鮮はこれ以来、清朝を宗主国と仰ぎ朝貢使節を毎年瀋陽に送らねばならなくなっただけではなく、朝鮮国王は明からではなく清の冊封を受けるに至った。朝鮮ではそれまで満州族を文化的に劣った民族と考え、これとは交隣関係すなわち朝鮮から恩恵を施してやるべき関係にある民族と考えて来たが、これに屈服させられ上下関係は完全に逆転した。さらに1644年には、清は北京に攻め入り明を滅ぼした。日本に侵略された時に亡国の危機を救ってくれた明をも滅ぼしたのである。この二つは朝鮮民族のプライドを痛く傷つけた。彼らは満州族を軽蔑し続け、清朝を恨むだけではなく、満州族に支配されながらおめおめと生き続ける漢族をも「胡人」と呼んで軽蔑した。漢族は弁髪を余儀なくされたからである。こうして「反満」と「中国蔑視」それにこれらを精神的に支える「朱子学信奉」は朝鮮の国是となった。

明朝が滅んで10年が経過した頃、国王孝宗の時代に朝鮮では武力をもって清を倒すべきであるとの議論が熱狂的な朱子学者である宋時烈らによって唱えられたが、この北伐論は実行されることなく終わった。朝鮮知識人は満州族を恨みつつ臥薪嘗胆するほかなく、武力で勝ち目がない以上は清朝が内乱で自滅してくれることを強く願うようになった。康熙年間に北京へ行った者たちが書き残した記録で

は、康熙帝が統治者としての資質で劣った人物であるとしてしばしば観察されている。また中国では内乱がしばしば起こっているとも報告された。天変地異や飢饉が頻発しているとも伝えられたし、満州族が奢侈にふけり弱体化しているとも伝えられた[2]。実際に呉三桂の反乱が起きたときに朝鮮は大いに希望を持ったが、青年皇帝康熙帝の断固たる指揮の下でこの反乱は間もなく鎮圧された。呉三桂の反乱が終息した後も、康熙帝は統治者としての資質において劣り、彼だけではなく満州族そのものが奢侈になり、昔に比べて衰弱している、中国各地で反乱が起こり飢饉が頻発していると燕行使によって伝えられたが、これは実態の一部を切り取って誇大視した彼らの希望的観測に過ぎず、当時の中国には朝鮮側が喜びそうな希望的観測を偽造しガゼネタを売って儲ける者もいたほどである。朝鮮知識人たちの反清意識、漢族蔑視の感情は長く続き、1801年(嘉慶六年、純祖元年)に北京へ行った呉載紹の『燕行日記』に見えるものはその代表と言ってよいであろう[3]。一年に少なくとも2回は北京へ朝貢使節が送られながら、朝鮮知識人は中国知識人との交流を絶っていた。両国知識人の間で交流が復活する大きな契機となったのは、1765年(乾隆三十年、英祖四十二年)に洪大容が北京へ行ったことである[4]。趙顕命が瀋陽へ行ったのは、その22年前のことであった。

次に趙顕命の中国観察を見てみよう。下に記すのは彼の中国観察の総論と言うべき部分である。

> 遼野無一片閑土，秋穀蔽之，人民之盛可知也。皇帝今行，用賞銀四百万両，錦段称之，財用之足可知也。諸王大臣，平日居養必厚，而万餘里駆馳，風餐露宿而略無疲困色，馬雖痩敗，一見鞭影，騰突如矢，士馬之精強可知也。自柵門至瀋陽，八九百里之間、挟大道植柳，其直如弦。蓋聞通天下皆然云，法令之斉一可知也。宴時殿上下粛然無声，諸王自外入班，時刻差晩，遑遑疾走如不及，朝綱之厳粛可知也。人民盛、財用足、士馬精強、法令斉一、朝綱厳粛，自外面見之，可謂昇平磐石之固也。
>
> 然皇帝内興土木，外事盤遊，愎諫好勝，大小政令専事要誉。其君要誉，故其臣以媚

2) 夫馬進，「朝鮮燕行使による反清情報の収集とその報告―1669年閔鼎重の"王秀才問答"を中心として―」，前掲書，第7章.
3) 夫馬進，「呉載紹『燕行日記』解題」，前掲書，456面.
4) 夫馬進，「解説」，『乾浄筆譚1』，東京：平凡社，2016.

玩事之。諸王大臣皆是庸奴。皇帝四子，十五歳八歳者，矮短不揚，人望不帰，五歳四歳者，生死姑未卜，而皇帝同母弟和親王亦眇小軽佻。其後事危凜甚矣。一日宮車晏出，天下事有不可勝憂者，而遠不過数十年耳。中原有事，海西之黄(荒)唐舡、江辺之偸山賊，有朝暮欄出之憂。而蒙古諸部中，鳥珠穆伀(沁)最倔強，而去瀋陽為四百里，乗時竊拠如反掌之易。若然則天啓後，水路之行将復有之。東人不可復安枕矣。

趙顕命は言う。

遼陽平原が隅々まで開墾されているところから見れば、人民が豊かなことがわかる。乾隆帝は今回の墓参りに当たって豊富な資金を自分から出しているのだから、財政も豊かである。皇族や大臣たちは満ち足りた生活をしているが、いざ遠征となると、野原で食事し野宿しても疲れた様子はなく、馬は痩せているとはいえ、鞭を見るや矢の如く疾走することから見れば、軍人と軍馬が精強なのも分かる。朝鮮との国境である柵門から瀋陽まで、広々とした道路の両側には柳が植えられ真っ直ぐに続いているが、これは全国どこでもそうだという。これから見れば、法令は全国一律に行き渡っている。宴会に列席する者すべては粛然として声なく、列席に遅れはしないかと心配する様からすれば、規律が厳格に守られていることが分かる。

このように表面的には清朝は今、太平にあり盤石の勢いにあるようだが、問題がある。それは乾隆帝が土木を興し旅行好きで、臣下たちから寄せられる忠言に耳を貸さず、何事に付け格好良さを求めることである。このため臣下たちは乾隆帝に媚びへつらい奴隷のごとくである。乾隆帝の子供たちもそれぞれ、皇帝になるような器はないようだ。一端、乾隆帝が死去するようなことがあれば、天下は大変心配なことになる。これは数十年のうちに起こるはずだ。そうなれば瀋陽からわずか200キロの所にいるモンゴルの最強部族、ウジュムチンが反乱し瀋陽の地を占拠するのは簡単なことだ。そうなれば明末天啓年間にヌルハチによって山海関から外が占拠された時のように、朝鮮は海路により北京へ朝貢せねばならなくなる。朝鮮はまた安心して寝られなくなってしまう。

以上、趙顕命が観察した中国=清朝は、今や物資が豊富に行き渡り政令が厳格に施行され、盤石の勢いにあった。その日記の中で、「いま聖朝は太陽が中天にある

ようだ(方今、聖朝如日中天)」とも言っている(八月二十六日)。彼は中国山東省と河南省で災害があったとの情報を得、さらに通訳を派遣してその詳細を探らせた。そして一部の地域では「飢えた民が集団を組んで豊かな家や旅行者から略奪し、人が人を食っている」との情報も得ていた[5]。しかしかつてであれば朝鮮にとって清朝滅亡の希望に繋がるとしてを喜ばれる情報も、趙顕命は一顧だにしない。その総論ではそれらにはまったく触れられない。清朝はどこから見ても内部から崩壊するようには見えなかったのである。

しかし一方、趙顕命は「天下の心配事が数十年を過ぎずして起きる」と言っている。ところがよく読めば、「天下の心配事が数十年を過ぎずして起きる」とは、間もなく清朝で内乱が起きて瓦解するということではなく、乾隆帝にも必ずやってくるその死亡であった。清朝が危ういのはただ一つ、乾隆帝があまりに有能な専制君主であり、彼が死去したら誰が後を継ぐことができるのか、という一点であった。この総論の後半部分は乾隆帝の欠点を挙げているように見えるが、必ずしもそうではない。それは乾隆帝が死去するまでは、中国が内乱によって瓦解するはずがないと言うに均しい。

趙顕命の中国観察は全体としてみるなら、極めて客観的である。中国瀋陽で情報収集もよく行っている。乾隆帝が死去したらモンゴル族が反乱すると予想したそのモンゴル族の動向についても、康熙帝が立てた願堂を守るモンゴル僧の所へ朝鮮から連れてきたモンゴル語通訳を派遣して、問いたださせた。「瀋行日記」九月五日に見えるモンゴル情勢の観察は、この時に得た情報に基づくものであろう。また国境鴨緑江の北側の中国領のうち、おおよそ瀋陽以東の地域についての詳細な地理情報とモンゴル族の情勢が、「瀋行日記」巻末に収録されている。これは北京の中国側通訳官である徐宗順の弟徐宗孟が、たまたま豆満江中流に位置する会寧で毎年開かれる朝中交易のために派遣され瀋陽へ来たとき、朝鮮側通訳を遣って詳細に問いたださせた情報である。この時、朝鮮側通訳は徐宗孟が所持している「路程記」をも謄写して持ち帰った。また徐宗孟に対して発した質問項目は、鴨緑江、豆満江国境外

5) 趙顕命,「瀋行日記」9月 13日,『歸鹿集』.“留金訳昌祚, 使之更探山東、河南被災状. 昌祚与教授老父酬酢, 其人以為, 今年山東、山西、河南旱害災同然, (…) 飢民聚党, 掠奪富室及行人, 至於人相食.”

の中国領の情勢に詳しい李日躋に、あらかじめ準備させたものだという6)。これら情報にもとづく観察は、かつてのような中国に間もなく内乱が起こる、あるいは起こってほしいという単純な希望的観測からなされたものでは決してない。

確かに趙顕命にあっても数十年後に天下には心配事が起こるであろう、という。これは趙顕命の中国観察が、一面で従来の伝統的な観察を引きずっているからであろう。しかしそれは逆に有能な乾隆帝の治世では天下は安泰であることを言い、その死去が心配だと言うもので、かつての燕行使による観察とは大きく違って来ている。

三.

では趙顕命によるこのような中国観察は、当時の朝鮮国内の政局とどのように関係するのか。あるいは彼の中国観察はソウル宮廷における反満意識をどのように反映したものであったのだろうか？

まず注目すべきは、当時の朝鮮国内では一部ではあれ、乾隆帝が瀋陽に来ることを単に先祖の墓参りのためであるとは見なされなかったことである。少なくとも当時の国王英祖はそうであった。従って今回の朝鮮側による瀋陽問安使の派遣も、毎年北京へ派遣される通常の燕行使と同様なものとは見なされなかった。次に瀋陽問安使が派遣された頃の朝鮮宮廷での問答と国内情勢を説明しよう。

趙顕命が漢陽(ソウル)を出発したのは七月六日のことであるが、その三ヶ月前の『朝鮮王朝実録』英祖十九年四月五日にはおおよそ次のような記事がある。この日英祖は宮廷から多くの臣下が退出した後で領議政金在魯、左議政宋寅明、右議政趙顕命だけを留めて次のように言ったという。領議政とは宰相であり政府のナンバーワンであるから、これら三人は最高首脳である。英祖は次のように言った7)。

---

6) 趙顯命,「瀋行日記・自瀋陽距我國會寧府程途」,『歸鹿集』.“右問答諸條, 李台君敬出題, 使書狀探問, 而記來者也. 附之卷末, 以備後考云爾.”李君敬が李日躋であること、「瀋行日記」燕超亭記に見える。

7)『朝鮮王朝實錄』英祖 19年 4月 戊子.“上命留三相, 敎曰:‘頃聞節使之言, 胡皇將其太后, 自居庸關, 過蒙古地, 當來瀋陽云. 百年之運已過, 乾隆之爲人不及康熙, 而今乃遠來關外, 甚可慮也. 我國昇平日久, 今當此機, 宜自廟堂, 先盡自强之道. 江邊守令及西路帥臣, 亦宜擇送矣.’在魯曰:‘康熙時, 亦以拜墓有瀋陽之行, 此亦似遵舊例, 何必過慮也. 但自强之道, 固不可不爲, 而至於守令、帥臣, 無端遞改, 則人心必騷擾, 徐爲之圖可矣.’

燕行使の報告によれば、清朝皇帝(胡皇)は彼の母親(太后)を連れて北京の北の関所居庸関からモンゴルの地(熱河)を通り、瀋陽へ来るという。清朝は百年続いた命運がすでに終わっており、乾隆帝の人物も康熙帝には及ばない。ところが今、北京から遠く満州の地(関外)にやってくるとは、大変心配なことだ。我が朝鮮では太平が長く続いているとはいえ、今この時に当たってはこの宮廷から始めて全国にまで"自強の道"を尽くさなければならない。国境鴨緑江近辺の地方官やその方面の軍事統帥官は、適切な人物を選ばなければならない。

これに対して、領議政の金在魯は次のように返答した。

康熙帝の時にも瀋陽への墓参はありました。今回乾隆帝が瀋陽へ来るのも、旧例に従っただけですから、心配しすぎる必要などありましょうか？自強の道は当然に為すべきことではありますが、地方官や軍事統帥官をわけもなく更迭したなら、人心は必ず動揺いたしますから、ゆっくりと対策を立てるのがよいかと存じます。

英祖はこれに対して次のように答えた。

清朝皇帝が瀋陽へ行くのは、これまでの習わしであるとはいえ、現在の清朝の様子は昔と比べものにならないのだから心配だ。予想もしないことに対して、宮廷はあらかじめ準備しておかねばならない。

乾隆帝が瀋陽へ来ると知って英祖が心配したのは、これによって朝鮮が被害を受けることにな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ことであった。しかし、瀋陽は朝鮮から遠く離れているし、皇帝が先祖の墓参りに来るぐらいのことで、何も心配する必要がないはずである。ましてや清朝側から皇帝が瀋陽まで行くから朝鮮に対して道路整備などのために人員を派遣せよ、あるいは資金を調達せよ、などといった命令はまったくなかった。乾隆帝の方から問安使を瀋陽まで送ってこいとの要求さえなかったのである。では英祖は何を心配したのか？

英祖が心配したのは、現在の我々にはほとんど想像もできない心配であった。それは清朝が衰弱して北京で政権を維持できなくなったとき、満州族はその発祥

上曰:'瀋陽之行, 雖有古例, 彼國時象, 非昔之比, 終有可憂. 凡係不虞者, 廟堂宜預爲措置也.'"

の地満州に逃げ帰るに違いない、その時彼らは現在の吉林省ニングタ(寧古塔)まで落ち延び、ここを根拠地にするであろう、その時逃亡ルートとなるのは、北京から出て山海関を超えた後、瀋陽を経てニングタへ直進するという通常のルートではなく、中朝国境の中国側に位置する鳳城あたりから朝鮮との国境を流れる鴨緑江付近を遡り、分水嶺である長白山(白頭山)に至り、そこからニングタへ向かうというルートであった。国境を敗残兵とはいえ、これまで恐れて反抗も出来ないでいた満州族の大軍が通過するというのだから、心配して当然なのかも知れない。では何故、瀋陽を直進してニングタへ進軍せずに朝鮮との国境を経由するかというと、瀋陽の西北にはモンゴル族の強力な部隊が待ち構えており、疲労困憊した満州族の軍隊をそこで遮り止めるからだと考えられた。満州族が瀋陽の付近でモンゴル族を突破して進めない限り、回り道をして鴨緑江を遡るルートを取るしかないという考えである。英祖の施策がこの満州族ニングダ逃走説に基づいていること、ここに見える「清朝の命運は百年過ぎた」という言説、鴨緑江沿岸の地方官と西路つまり黄海道と平安道の軍事司令官として適切な人物を選ぶべきだとの主張、さらにその後における議論の展開から見て明らかである。

このような考えが朝鮮でいつから始まったのかは知らないが、『朝鮮王朝実録』による限り少なくとも1680年(康熙十九年、粛宗六年)には明瞭に見える[8]。これより7年前の1673年(康熙十二年、顕宗十四年)、中国では呉三桂が反乱に立ち上がった。1678年には呉三桂が死去し、そのニュースはすでに朝鮮に伝わっていたが、朝鮮ではなお清朝が敗北するという希望的観測を捨ててはいなかった。この時の議論に拠れば、清の敗走兵が朝鮮国境鴨緑江を通過するであろうとの予測は、さらにこれより20年以上前、北伐を検討していた国王孝宗が唱えたという。「胡に百年の運なし」すなわち「満州族の天下は百年続かない」と言う言葉は、朝鮮では早くから諺になっていたという。1712年(康熙五十一年、粛宗三十八年)に宮

8)『朝鮮王朝實錄』肅宗 6年 3月 甲午. “許積發上勅白頭山事而曰: ‘昨日金錫胄聞此而曰: 「此正如孝廟下教矣.」 孝廟嘗曰: 「吾豈不欲往征之哉? 恐其敗歸時, 必受禍也.」 或請其由, 孝廟曰: 「是其勢然也. 其歸路必見阻於蒙古, 彼將自義州由陽德、孟山, 入咸鏡道, 轉向其土矣.」 今日事勢, 雖不可知, 蓋觀其意, 欲取路於我, 歸其土之意也. 托以致祭, 以觀我氣色.’”

廷でなされた議論によれば、ある臣下は粛宗に対して「胡に百年の運なし」という諺を引用しつつ、清の敗残兵は朝鮮国境を通るであろうと述べ、清朝が朝鮮に対して朝貢物品の減額をしたのも、その時に朝鮮に助力を求めるためであると言い、朝鮮国内の薛罕嶺へ清朝側調査員の足を踏み入れさせてはならないと強調した[9]。この時に清の敗残兵が鴨緑江を遡りニグタへ落ち延びることが問題となったのは、その前年から康熙帝の命令でムクデン(穆克登)が国境地帯の調査にやってきていたからである。

康熙帝が死去した1722年(康熙六十一年、景宗二年)になると、また敗残兵が朝鮮国境を通過することが心配された。康熙帝が死去したとのニュースが朝鮮へ伝わると、間髪を置かず「中国では内乱が起こる」と心配され、敗残兵はモンゴル族に阻止されて瀋陽を直進して行軍せず、朝鮮との国境を経由すると主張された。それを主張した人物によれば、「内乱は80パーセントから90パーセント起こる」と推測された[10]。英祖がしたような心配は、実はこれまた有能な専制皇帝康熙帝が死去した時に、すでに体験済みであった。

英祖には清朝が始まってから百年がすでに立ち、清朝の運気、命運が尽きようとしていると見えた。しかも乾隆帝が康熙帝ほど統治者としての資質に欠けているように見えた。少なくとも臣下にはそのように述べた。満州族が清朝を建国して

---

9)『朝鮮王朝實錄』肅宗 38年 2月 庚辰. "引見大臣、備局諸臣. 右議政趙相愚曰: '彼咨文, 又有差官往長白之語. 我國陸路之難通, 壬申回咨得請, 水路之難通, 昨年穆克登, 亦已備知. 急修回咨, 備陳水陸俱難得達之狀, 則或不無停行之道.' (…) 吏曹參議李光佐尤力言曰: '語云, 胡無百年之運. 彼數十年內, 待我過厚, 至於減貢者, 必有其故. 蓋百年中土, 狃於錦繡、肉, 一朝還歸漠北, 勢必難堪. 早晩敗歸時, 緩則欲自魚鹽物産, 以至土地、民人, 無不取資於我, 急則欲取路於我西北, 故此行將預察山川隘塞, 道里遠近也. 內地薛罕嶺路, 決不可許矣.'"

10)『朝鮮王朝實錄』景宗 2年 12月 壬子. "提調李台佐曰: (…) '大抵中國有事之日, 卽我國受弊之兆也. 康熙旣沒之後, 禍亂之作, 十居八九, 內亂旣作, 而或他蕞復生, 或眞人始起, 則彼不可仍據中土, 必以寧古塔爲巢穴. 夫山海關之外, 東北距瀋陽, 瀋陽西北, 皆蒙古地方, 蒙古若乘其殘憊, 以一部截其歸路, 則彼進不得達於寧古塔, 退不得復入山海關, 其勢或迸於鳳凰城, 或南出於金復州, 或出於曖陽. (…) 若自此取路, 掠得淸北諸郡, 直由薛罕嶺, 由咸鏡道, 復渡豆滿而北, 則可達於長白山之側, 而爲寧古塔之捷逕. 此卽向年胡差穆克登所覘處也, 此其一可憂也.'"; 英祖 7年 6月 乙未. "前獻納李日躋曾論西北界無防守間諜, 事多踈虞, 請依宋朝韓・富故事, 使廟堂之臣分掌西北, 以統領之. 上以其疏, 下詢諸臣. 領議政洪致中曰: '臣以評事, 往登白頭山, 則其時穆克登來定地界, 而此山與寧古塔, 隔一衣帶水, 脫有事變, 彼必假道. 北旣接近胡境, 西亦隔以一江, 如能得人, 分掌如周之東西陝, 則豈不好矣. 而韓・富未可易得也. 今之廟堂, 亦宋之樞密, 不必別定名號也.' 上曰: '今之諸臣, 常有勿忘西北之心則可也.'"

山海関を超え北京へ入り、明朝を倒したのは1644年のことであったから、1743年といえばそれからちょうど百年が過ぎたことになる。ちょうどこの年に乾隆帝が大軍を率いて瀋陽まで来るとなったので、このような心配を述べたのである。清朝が中国を統治し始めてから百年がたちその命運が尽き内乱が起こる。趙顕命はちょうど彼がソウルを出発する直前に国王が述べたこのような心配、宮廷におけるこのような問答の影響を受けて乾隆帝という人物を論じ、モンゴル情勢を探り、瀋陽からニングタまでの地理情況について情報収集をした。彼の中国観察が、当時の朝鮮政局の影響を大きく受けたものであったことは、明らかである。

趙顕命が瀋陽に向けてソウルを出発したのは、すでに述べたように七月六日である。『朝鮮王朝実録』英祖十九年七月己丑(九日)によればこの頃、朝鮮では乾隆帝が間もなく瀋陽へ来るというので、流言飛語が飛び交っていた(訛言多起)という。これは実際には英祖自らが招いたものであった。と言うのは、続いて次のような記事が見えるからである。

英祖は大臣たちを集めて自強策すなわち国防増強策、治安増強策を図った。この時英祖は、「皇朝である明朝は李自成の反乱によって滅びたが、もし楊漣のような人物がその時いたら、滅びるまでには至らなかったであろう」と述べたという[11]。楊漣とは明の滅亡に先立つ二十年ほど前、天啓帝のもとで宦官魏忠賢が専権を握って政治が混乱したとき、毅然として魏忠賢に反抗し続け、ついに冤罪をかぶせられ獄中で虐殺された人物である。英祖は今や乾隆帝が鴨緑江までやってくるかも知れない、朝鮮は存亡の危機にあると危機感を煽りつつ、臣下たちに奮起を促したのである。

さらに『朝鮮王朝実録』によれば八月十七日、英祖は京畿道観察使柳儼を宮廷に招いてソウルの防衛について相談した。京畿道観察使とは現在の日本で言えば東京都知事に当たるであろうが、その管轄区域は千葉県、神奈川県、埼玉県全域を含ん

11)『朝鮮王朝實錄』英祖 19年 7月 己丑. "上引見大臣、備堂. 時清皇北巡, 訛言多起. 上曰: '命卿等入侍, 亦欲講自强策也.' 領議政金在魯曰: '安不忘危, 乃所以久安也. 別擇帥臣, 申嚴邊備, 亦固圉之術也.' 左議政宋寅明曰: '國治則外賊不足慮, 而國亂則蕭墻之變, 亦可憂也.' 上曰: '皇朝以李自成之亂, 終至於亡, 若使楊漣輩在朝, 則豈至是乎?'"

だものに相当する。この頃、ソウルの内外では乾隆帝の遠征に関わる流言飛語が大いに起こっていた。これを憂慮した英祖がソウルを守る責務を負う最高長官を呼び出して対策を諮問したのである。ところが二人の問答は次のように興味深いものであったという。

> 柳儼：我が国は外国からの侵略を心配する必要は必ずしもありません。
> 英祖：どういうことか？
> 柳儼：我が国は弱国です。モンゴルが来たらこれまで清朝満州人に対してやったやり方で対応すればよろしい。もっと西のモンゴルがやってきても、このようにすればよろしい。

英祖はこれに答えることなく、注書(承政院所属の書記官)に対して、「これらの問答を全部は書き取らなくてもよい」と注意したという[12]。

それにしても柳儼は率直に意見を述べたものである。「モンゴルが来たらこれまで清朝満州人に対してやったやり方で対応すればよろしい」とは、簡単に言えば武力抵抗はせずに、モンゴルの臣下となって朝貢し冊封される対象をすげ替え、その支配下に甘んずればよいと言うのである。『朝鮮王朝実録』のこの言葉を書き込んだ実録編纂官もこれはひどすぎる言葉だと思ったらしく、「我が国は言うまでもなく弱国である。しかし柳儼の答えはあまりに無礼ではないか。英祖が答えなかったのも当然である」と感想を記している。実際、歴代国王の言動を事細かく記録した『承政院日記』には、この日英祖が柳儼と首都防衛について話し合ったことを詳細に記録しながら、以上述べた柳儼の言葉は記録されない。しかし『承政院日記』では、これを記さない代わりに柳儼と英祖とが次のように問答を交わしたと記録しており、これまた興味深い[13]。

---

12)『朝鮮王朝實錄』英祖 19年 8月 丁卯.“上召見京畿監司柳儼. 時有瀋陽問安使之行, 京外騷屑, 訛言大行, 上甚憂之, 問儼以守都城、入江都便否. 儼對曰:‘我國不必以外寇爲慮.’上曰:‘何謂也?’儼曰:‘我國弱國也. 蒙古來, 則待之如淸人, 西韃雖來, 亦如之而已.’上不答, 顧謂注書曰:‘此等說, 不必盡記矣.’史臣曰:‘我國固弱國也. 然儼之所對, 何其無禮也. 足令識者寒心. 宜乎, 上之不答也.’”

13)『承政院日記』英祖 19年 8月 17日.“[柳儼]曰:‘(…) 而從古亡国者, 必數代失德, 然後始亡. 康熙・雍正・乾隆皆無失德, 似不至於速亡矣.’上曰:‘常談不曰「郡無事村無事」乎. 中原有難, 則我國亦將勞苦矣.’儼曰:‘外間多騷屑, 聖上不必以此等事, 頻頻下敎矣.’上顧謂臣朝潤曰:‘此等說話, 不必盡書之矣.’”朝潤とは、

柳儼 ： 昔から亡国とは、必ず数代にわたって皇帝の失徳が続き、初めて滅びるものです。康熙帝、雍正帝、乾隆帝三人ともに失徳はないのですから、急に亡びるようなことはないようです。

英祖：“郡が無事なら村は無事”と言うではないか。中国に災難があれば我が国も苦労する。

柳儼：宮廷の外では大いに騒がしくなっております。陛下におかれては、これらの命令を頻々とお下しになりませぬよう。

『承政院日記』でも、この後で英祖が「これらの話を全部は書き取らなくてよい」と注書（書記官）に命じたと記す。柳儼が述べたという「我が国は弱国です」云々が『承政院日記』に記されないのは、このためであろう。先に紹介した英祖の言葉、すなわち四月五日に領議政金在魯ら三人にだけ語ったという「清朝は百年続いた命運がすでに終わっており、乾隆帝の人物も康熙帝には及ばない」云々も、『承政院日記』には記されない。おそらくこれも、その言葉の重要さに鑑み、英祖が注書に対して記録するなと命じたからであろう。

英祖が乾隆帝が瀋陽まで来るからといって危機感を煽り、国防の強化を図らんとする政策に対して、一部の臣下は懐疑的であり冷静であった。それはすでに見た領議政金在魯の発言にも見ることが出来よう。「満州族憎し」との心情は朝鮮で確かに長く続いた。「反満」「反清」は朝鮮の国是であり続けたのであり、英祖の言葉もこれを前提にして発せられたのである。しかし一方で、柳儼が英祖に対してあからさまに言ったように、「朝鮮は弱国だから、中国で満州族からモンゴル族の世界になったら、そのように対応すればよい」、あるいは「康熙、雍正、乾隆ともに失徳はない。清朝は簡単に亡びない」と言い放つ者がいた。英祖はこの言葉に逆に煽られてしまい、「“郡が無事なら村は無事”と言うではないか」と言ってしまったのである。この場合の郡とはもちろん中国を指し、村とは朝鮮を指すであろう。中国で乾隆初年の頃になると朝鮮では、「中国が無事であれば、朝鮮も無事である。中国が安定しておれば、朝鮮も安定する」、と国王自らが言い、「中国に災難があれば我が国も苦労する」と率直な言葉を漏らすに至っていた。「反満」「反清」の

この日書記を務めた仮注書の金朝潤である。

国是からすれば、煽られたものとは言え国王が決して言ってはいけない言葉を漏らすに至っていたのである。

さて、趙顕命がソウルへ帰ったのは十月二十七日である。当日直ちに宮廷へ参上して帰朝報告をした。『朝鮮王朝実録』によれば、英祖が趙顕命に「中国の情況はどうであったか？」と尋ねたのに対して、趙顕命は次のように答えたという。

> 外見的には太平のようですが、内実は知らぬ間に混乱倒壊しております。私が見るところでは数十年ならずして天下に必ず大乱が有ります。政令はみな乾隆帝が良い格好をしようとして出されるだけですし、臣下たちは媚びたことを言うだけで、大臣たちは凡庸です。宮廷にいる臣下たちが軽佻であるのは、大いに心配です。

これに対して英祖は、「中国で内乱があるのは、我が国の心配事である」と言ったという[14]。

ここに見えるように、趙顕命の答えは先に見た「瀋行日記」に書いた中国観察の後半部分を切り取ったものと言ってよい。中国では政令が厳格に行き渡っていること、乾隆帝が有能であることはまったく記されない。この報告だけを見るなら、「数十年ならずして天下に必ず大乱が有ります」というのは、その実、有能な専制君主乾隆帝にも必ず訪れる死去のことであることは、誰にも分からないであろう。「瀋行日記」という史料がなければ、誰もが趙顕命のレトリックに引っかかるほかないであろう。あるいは書き残された史料に騙されるほかないであろう。なお、この部分も『承政院日記』には記されない。『承政院日記』には趙顕命が乾隆帝から下賜された品々をどのように処理すべきかなどをめぐって、詳細な記事が見えるが、趙顕命の上の言葉は「云云」の二字に置き換えられ、「中国で内乱が有るのは、我が国の心配事である」との英祖の言葉に至っては一字も書かれていない[15]。これまた英祖が注書に対して記録することを禁止したからである。趙顕命という人物は、

---

14)『朝鮮王朝實錄』英祖 19年 10月 丙子. “上引見大臣、備堂. 瀋陽問安使趙顯命、書狀官金尙迪復命, 上召見之, 問顯命曰: ‘彼中事何如?’ 對曰: ‘外似昇平, 內實蠱壞. 以臣所見, 不出數十年, 天下必有大亂. 蓋政令皆出要譽, 臣下專事諛說, 大臣庸碌, 而廷臣輕佻, 甚可憂也.’ 上曰: ‘中原之有亂, 我國之憂也.’”

15)『承政院日記』英祖 19年 10月 27日. “上曰: ‘彼中事仔細陳達可也.’ 顯命曰: ‘云云.’ 上曰: ‘獨特記事官書之, 注書勿書焉.’”

当時の国内政局を睨み国王英祖の言動に従いつつ、中国観察を着実に行ってこれを日記に留める一方、朝鮮国王に対しては「清朝は現在のところ盤石の勢いにあり、倒壊しそうにありません」と正面から反論するようなことのない、あるいは周囲の状況を読むことのできる、実際的な老練な政治家であった。

趙顕命が『朝鮮王朝実録』に記されるような返答をしたとすれば、それは何故か。あるいは、自強を主張し国防の強化を図らんとする英祖に諂ったからかもしてない。あるいは自分が見た中国観察をそのまま報告せず、清朝が危険な情況にあることだけを取り挙げて報告する伝統がなお続いていたのかも知れない。また自らの中国観察を正直に言うのを危険と感じたからかも知れない。実際、翌十一月になると趙顕命は瀋陽で乾隆帝に対してあまりに卑屈な態度を取り阿諛したとして攻撃され、その弁明を余儀なくされる。その攻撃は完全な「小中華」思想、すなわち今や弁髪をせず正式な冠をかぶり正式な衣服を着ているのは朝鮮だけだという、「反満」「反清」「漢族蔑視」という国是からなされた批判であった16)。いずれにせよ間違いのないのは、趙顕命が瀋陽に旅行して自ら為した中国観察は、かつてのような主観的な希望的観測ではすでになく、極めて客観的であったこと、これに反して朝鮮宮廷でなした中国観察は、一方でその客観的観察を隠し、「反満」「反清」を国是としてきた百年の伝統の中でなされるという矛盾したものであったことである。

四.

では、趙顕命による中国観察はその後の燕行使による中国観察と比較して、どこに位置けられるのであろうか？

洪大容によって1766年になされた中国旅行が、朝鮮知識人による中国観察を変える決定的契機であったことは、すでに述べた。それは趙顕命による瀋陽旅行の23年後のことであるが、ここではさらにその64年後、1830年(道光十年、純祖三十年)に洪敬謨が記した燕行録を紹介しよう。彼の燕行録である『燕雲遊史』についてもすでに解題を書いたことがあり、そこでもこれについて記した17)。その第3

16)『朝鮮王朝實錄』英祖 19年 11月 丁未; 12月 甲戌.

冊「清開国記」では次のように述べる。

> [清]大公至正, 扶綱植常, 自古今以来, 亦未知或聞也。且其政謨法制, 専尚于簡, 文治武略, 各得其要。至於薙天下之髪、左天下之衽, 不変我家制度者, 亦是宏謀遠略, 殆不可以外夷論之。而苟非上天所置之命吏, 豈能若是之盛矣。是知天之生是人也不偶, 而不偶則必有以相之者, 其所以相之者, 即天之所命也。天之所命, 不在於華夏夷狄, 而監于有徳也, 明矣。

ここに見えるように、清が大公至正で根本の制度がしっかりしていること、それは歴代の王朝と比べてみても前代未聞であるとまで持ち上げられるに至っている。満州族が中国の支配者になったのは天命を受けているからだとして、「天の命ずるところは中華であるか夷狄であるかに関係ない、徳があるかどうかである」と述べている。朝鮮では「小中華」思想、漢人蔑視の根拠としてあれまで強調されてきた弁髪の強制についても、「満州の制度を変えぬための深謀であって、これをもって満州族を“外夷”と言ってはいけない」とまで主張するに至っている。朝鮮のそれまでの国是がここでは完全に否定されている。

清が天下を取ったのは天命によるとの考えは、趙顕命による中国観察においてすでに

萌芽的に現れていた。そこでは次のように言っていた。それは朝鮮側通訳が皇陵すなわちヌルハチを祀る福陵(東陵)あるいはホンタイジを祀る昭陵(北陵)を遠くから眺め、「山勢が異常であった(山勢異常)」、すなわち陵墓には異常に神々しいものを感じたと報告したときの感想である。

> 余念, 設此無辺遼野, 以便鉄騎騰突, 山亦龍飛鳳舞, 以為発祥之地。天之所以準備者, 如此。明朝雖無鉱税之弊、三案之閧, 亦将如之何哉。[18]

趙顕命は通訳から「山勢が異常であった」と聞き、清の軍隊が明の軍隊に勝ったのは、天の助けがあったからであると考えた。「鉱税之弊」とは明代万暦年間に宦

17) 夫馬進, 前掲書, 2015, 478面.
18) 趙顕命,「瀋行日記」九月十七日,『帰鹿集』.

官勢力が鉱山の開発と関税の徴収によって全国を疲弊させたことを言う。「三案之閑」とは天啓年間に宮中で起こった三つの事件をめぐって、宦官派と東林党とが血みどろの闘いをしたことを言う。すでに述べたように、英祖が「皇朝である明朝は李自成の反乱によって滅びたが、もし楊漣のような人物がその時いたら、滅びるまでには至らなかったであろう」と言ったその楊漣とは、この「三案」に関わる党争の延長線上で虐殺された人物である。したがって趙顕命はここでは英祖の見方を疑問とし、明朝が亡び清朝が天下を取ったのは、天命によると言うかの如くである。明朝は「鉱税之弊」や「三案之閑」によって亡びたとする当時の俗説を、趙顕命はすでに脱却しており清朝の発祥を天命によると考えるに至っていた、と見てよいであろう。

五.

朝鮮燕行録を読む者は、しばしばそこに激しい反満意識を見いだす。弁髪を付けずに明朝の衣冠を付けた自らを誇り、漢族をも軽蔑する意識を見いだす。我々はその激しい反満感情が、それまではるかに劣った民族と見なしていた満州族に逆に支配を受けるに至ったこと、二回に及ぶ侵略が凄惨を極めるものであったことに由来すると解釈し、納得する。そして彼らの臥薪嘗胆の思いがいかに強いものであったかと想像する。

しかし一方、ここで見たように国王英祖が見せた反満意識とは、まったく満州族と戦うことなく、朝鮮が満州族の逃避行によって損害を受けることだけを心配するというものであったことにも、注意する必要がある。徹底した反満意識があるのなら、満州族が中国国内で内乱に遭い、瀋陽を正面突破できずに鴨緑江へ迂回し敗走するというのなら、満州族に対する積年の恨みを今こそ晴らそう、臥薪嘗胆の思いを今こそ実現しようとして、武器を取り鴨緑江沿岸で待ち伏せ襲撃しようという議論が当時起こりうるのではないか。ところが国王英祖の発言からは、そのような動きをまったく読み取ることはできない。彼はむしろ「郡が無事なら村は無事であると言うではないか。中国が安定すれば、朝鮮も安定する」と考えてい

た。「百年の運」がここで尽きてくれては、むしろ迷惑だというのである。英祖にあっては、国内の統治を強固にするために、「清朝百年の運」という反満意識を利用したかに見える。

イデオロギーという言葉は、「虚偽意識」を意味すると解釈される[19]。同じく現実を超越しようとする意識であるユートピアが現実を打破しようとする方向性を持つのに対して、イデオロギーはむしろ現実を隠蔽しようとする意識であるという。「百年の運」というから反満意識であるかのように見えながら、英祖の場合は現実を覆い隠して実は国内支配を強化しようとし、逆に清朝支配が安定することを願うものであった。彼の反満意識がイデオロギーであり虚偽意識であることは、時の宰相である金在魯にすら簡単に見破ることができた。金在魯は宮廷で、「自強は当然なすべきことではあるが、地方官や軍事統帥官をわけもなく更迭したなら、人心は必ず動揺する。ゆっくりと対策を立てるのがよい」と暗に英祖の意見に反対した。これは英祖の言葉にはウソが含まれていること、それが虚偽意識から発せられたものであることを容易に理解できたからである。また京畿道観察使の柳儼が、「朝鮮は弱国である。モンゴル族が来たらこれまで清朝満州族に対してやってきたやり方で対応すればよい」、と暗に武力抵抗はせずにその朝貢国となればよいと言い、このような史料には滅多に残らない言葉を吐くことによって国王英祖を挑発し、その本音を吐き出させたのも、それが虚偽意識であることを簡単に見破っていたからである。

趙顕命は「瀋行日記」の中で、満州族が発祥し中国を支配することになったのは天が助けたからであると解釈した。彼が反満を主張し口に出していたのかどうかは明確ではないが、国王の前でなした中国報告がいかにも満州族「百年の運」が尽きようとしていると見せかけるものであった以上、これまた虚偽であったと言わざるを得ないであろう。このような虚偽意識を「人を欺き以って自ら欺く」もの、「陰祕である」として徹底して嫌悪したのは、趙顕命より40年後に生まれた洪大容であった[20]。この洪大容自身、1765年(乾隆三十年、英祖四十一年)に燕行をはた

19) マンハイム, 高橋徹・徳永恂 訳, 『イデオロギーとユートピア』, 世界の名著 56, 東京: 中央公論社, 1971.

し、少なくとも翌年、中国の知識人と筆談を交わした段階では極めて強い反満意識の持ち主であった。

朝鮮燕行録の世界には、朝鮮知識人の持った精神世界の神髄にせまる記録がしばしば登場する。単純に読めば我々が簡単に騙されてしまう記事も多い。しかしこれは燕行録に限らず、史料とは常にそういうものであることを知らねばならない。また歴史を研究する者の仕事の一つは、そこに虚偽や虚構があることを見破ることであろう。我々は朝鮮燕行録を単に珍しい特殊な史料と見なすことなく、人類の重要な知的財産の一つとしてより様々な史料と結びつけ、さらに研究を深める必要がある。

20) 夫馬進,「洪大容『醫山問答』の誕生」, 前揭書, 2015, 410面; 洪大容,「雜詠十首」(1770年, 乾隆三十五年, 英祖四十六年),『乾浄附篇』巻一.“欺人以自欺, 俯仰能無愧. 須知名外名, 乃是利外利. 憧憧隱微間, 安排足陰祕. 褊心実不忍, 中夜發驚悸. 安得眞實人, 共遊眞實地.”

▮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

趙顯命, 『瀋行日記』.
洪敬謨, 『燕雲遊史』.
洪大容, 『乾淨附篇』.

夫馬進, 『朝鮮燕行使と朝鮮通信使』, 名古屋大學 出版會, 2015.
夫馬進 編, 『乾淨筆譚 1』, 東京: 平凡社, 2016.

Mannheim, 高橋徹・徳永恂 譯, 『イデオロギーとユートピア』, 世界の名著 56, 東京: 中央公論社, 1971.

【Abstract】

The world of the Joseon (朝鮮) Yeonhaengrok (燕行錄)
—Jo Hyeon-Myeong's view on China and Yeongjo's Anti-Qing consciousness confirmed in Jo Hyeon-Myeong's *Simhang-ilki* of Kawai collection—

Huma Susumu*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Jo Hyeon-myung's observation of China and King Yeong-jo's anti-Qing consciousness in *Simhang-ilki* (瀋行日記), one of Kawai collection, and to reveal the historical position of *Simhang-ilki* among the numerous Yeonhaengrok (燕行錄), written during the Qing Dynasty of China. Jo Hyun-myung's observation in China was very objective, unlike the previous series of yeonhaengs (燕行) which were interpreted from the perspective of subjective hope in favor of Joseon, and he even interpreted that the rise of the Manchus to rule China was helped by heaven. On the other hand, while King Yeong-jo seemed to reveal his own Anti-Manchu (反滿) and Anti-Qing Dynasty (反淸) conciusness by talking about "the fortunes of the hundred years of the Qing Dynasty," he intended to strengthen domestic rule. We can't figure out such a point in historical records such as the *Joseonwangjo-sillok* (朝鮮王朝實錄) or *Seungjeongwon-ilki* (承政院日記) and *Simhang-ilki* (瀋行日記) is the only text that these facts are confirmed. As such, the Joseon (朝鮮) Yeonhaengrok (燕行錄) sometimes show us some records containing the essence of the spiritual world held by Joseon intellectuals. It is necessary to identify historical falsehoods by connecting them with various historical records to deepen research.

Keywords: Jo Hyeon-Myeong (趙顯命), *Simhang-ilki* (瀋行日記), *Guirok-chip* (歸鹿集), Yeong-jo (英祖), Yeonhaengrok (燕行錄), Anti-Manchu (反滿), Anti-Qing Dynasty (反淸).

접수일: 2019.04.01. ‖ 심사일: 2019.04.10. ‖ 게재확정일: 2019.05.17.

* Honorary professor, Kyoto University.